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수예 소장. 다양한 불화 작업으로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곡사 괘불탱 작업에 매진 중이다.

# “불화는 종교미술 아닌 예술작품”

문화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수예 소장**

“사찰은 불국토를 형상화시킨 공간이죠. 법당 안팎의 그림들을 한 점 한 점 독립시켜 보면 그것이 곧 작품이 돼요. 이번에 모사한 미황사 부처님과 천불도 단청 등은 사찰에서만 볼 수 있던 불화들을 법당 밖 갤러리로 옮긴 셈이죠. 이번 전시로 일반인들이 불교미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수예 소장은 불교미술이 사찰 밖으로 나와 대중과 친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수예 소장(42)은 ‘명필 미황사 큰부처님 서울에 나투시다’전을 기획한 장본인이다. 불화가인 그는 이번 전시에서 사찰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높이 약 1170cm, 폭 486cm에 달하는 초대형 걸개그림인 ‘해남 미황사 괘불(보물 1342호)’을 완성해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번 전시가 아니라, 미황사의 천불도 25점, 포백나한도 13점, 단청만양도 114점 등 총 153여 점을 모사해 11월 4일까지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서 전시를 열었다.



해남 미황사 괘불 모사도(부분)

이 소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금선사, 도국사, 흥국사 등 80여 사찰의 단청 및 불화 작업에도 참여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그간의 노하우를 응집해 사찰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고 사찰 미술 복원에 매진했다.

20년동안 미황사·범어사 등

80여 사찰 불화·단청 작업

“불교미술 대중화에 매진하고자”

“기존 사찰 단청은 문화재수리 기술자나 보존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분야를 예술적으로 잘 복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화 전공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찰문화재연구소를 개원해 사찰 단청을 복원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죠.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가 인정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미황사 단청과 벽화 복원이었고 미황사 괘불 모사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소장자를 비롯한 불교미술 전공 연구원 9명은 3년여에 걸쳐 안료분석과 적외선 촬영, 디지털 현미경 촬영 등 과학적 조사방법을 토대로 원본의 재료, 형태, 도상 뿐 아니라 오염 박락 손상부분 등을 복원해냈다. 해풍에 깎여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대웅전 안팎의 단청들까지 원형을 완벽하게

찾아내 조선 후기 단청과 벽화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사 작업이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명나라 도자기를 복원한 청나라 도자기가 현대에 와서 문화재로 인정받듯 모사 작품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문화재 보호와 불화의 대중화 측면에서도 모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1대 1 모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모사본을 공개하고 진품은 보관한다면 문화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시절, 임시미술을 준비하며 책자를 뒤적거리다 불화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 불교미술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는 이수예 소장. 불모는 자신의 전직이라 여기며 불화 단청 등 수많은 작업에 참여해왔다. 5번의 개인전과 17번의 단체전을 가질 만큼 작품 창작에도 최선을 다해 왔던 그는 앞으로 법당 안의 작품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에 진력할 계획이다.

“불교미술이 종교미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청 하나, 벽화 하나를 떼내면 그대로 훌륭한 미술품이죠. 절 안에 있으니 종교미술이라 하지만 절 밖으로 나오면 대중들의 눈길을 끌만한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불화가들이 앞으로 다양한 작업을 통해 불화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소장은 오는 12월 24일 범어사 단청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해 대중들을 찾아간다. “단청을 설치미술로 보여줄 생각이예요. 사찰 천정을 벽으로 내려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했다고 해야 할까요? 많은 대중들이 이 전시를 통해 사찰 미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누워서 물결 소리 싫도록 들어볼까

이름 난 관음도량

강화 석모도 낙가산 보문사(普門寺)는 관음도량이다. 절의 배경을 이루는 산 이름 ‘낙가’는 중국의 관음성지 보타락가(補陀洛迦)에서 다 온 것이며, 절 이름의 ‘보문’도 관세음보살의 넓고 큰 자비를 의미하는 말이다. 신라 선덕여왕 4년(635)에 회정(懷正) 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다가 이곳에 와서 절을 짓고 산과 절 이름도 그렇게 붙였다고 전해 온다.

창건 이후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를 알리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창건이나 관음신앙과 관련한 여러 설화와 전설이 전해 온다. 그만큼 보문사는 오랜 절이고 관음도량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 졌다는 얘기다. 오늘날 보문사는 남해 보리암, 양양 흥련암과 더불어 3대 관음성지로 이름나 있다.

석굴법당과 눈썹바위 마애관음좌상이 보문사를 유명 기도처로 만든 주역이다. 석굴법당의 나한상 22좌는 635년에 인근의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눈썹바위의 마애관음좌상은 1928년에 조성되었다. 그 위치가 서해를 넓게 조망하는데, 특히 일몰경관이 장엄하게 펼쳐져 인기가 높다.

오늘날 이름난 관음도량으로 자리를 굳힌 보문사는 옛 선비들에게도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절이었다. 무엇보다 고려 말의 석선탄(釋善檀?~?)스님은 시문에 능하고 거문고 연주도 탁월했으며 여러 선비들과 교류를 했다. 선탄 스님이 보문사에서 누군가의 시를 차운하여 칠언을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동문선> 제15권에 전한다. 제목은 ‘차보문사각상시운(次普門寺閣上詩韻)’으로 보문사 전각에 걸린 시를 차운해 쓴다는 뜻이다.

산석경생략학행(山石平生學 4) 차현영득십년정(此軒得十年靑) 우훈앵주변초(雨昏鶯洲邊草) 운권부용해상성(雲卷芙蓉海上城) 사안어등연외의(沙岸魚燈煙外遠) 월루인어아심청(月樓人語夜深淸) 약위장반강구거(若爲長伴江鷗去) 포청창파락침성(飽聽蒼波落枕聲)

평생에 율특불특한 산길을 다녔으니 이 절이 10년의 정을 담았구나. 앵무구 기의 풀에 비가 침침하고 바다 위의 부용성(선선이 사는 성)에 구름이 견조하네. 모래톱 어선의 등은 연기밖에 멀리 뵈고 달 비친 다락 사람의 말소리는 밤 깊어 고요하네. 어쩌면 노승 갈매기를 찍하고 누워서 물결 소리를 싫도록 들어볼까.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43 강화 보문사 ㉔



우리나라 3대관음도량의 하나로 늘 기도객과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보문사.

스님의 시답게 차분하다. 만행을 하다가 들른 보문사의 풍경이 ‘10년의 정’으로 다가오는데, 푸른 수풀과 바다 안개가 조화를 이루고 멀리 빛으로 보이는 여선과 누각의 사람 말소리는 고요 속에 잠기고 있다. 그러한 고요 속이란 다음 아년 선정의 삼매일 것이다. 구도자에게 그러한 삼매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시를 차운하며 물결소리 듣는 한가한 경지의 사람, 무위진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겠는가?

기에 심심 깊은 불자들이 불공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그 복덕이 영원하길 비는 근엄한 정서로 마무리 짓는다.

긴 시로 읊은 자비와 지혜

같은 시대의 문신 이장용(李藏用 1201~1272)도 이수예의 시를 차운하여 40행의 칠언배율을 썼다. 제목이 ‘이수의 보문사 시를 차운하여 물결소리 듣는 한가한 경지의 사람, 무위진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겠는가?’

해상천운선로통(海上穿雲線路通) 옥호광투수정궁(玉毫光透水精宮) 안전렴영유리벽(眼前凝影 유리벽) 설상분명함담승(舌上分明 1) 정대장엄무량수(頂戴莊嚴無量壽) 수회마루선재동(手回摩撫善財童) 회선감발수창옹(回旋紺髮垂蒼翁) 영엄원광요채홍(映嚴圓光纔彩虹)

절단창명일위통(截斷滄溟一葦通) 오운심처범왕궁(五雲深處梵王宮) 부림옥경정징벽(俯臨玉鏡澄澄壁) 선승금륜삼점승(先 輪閃閃紅) 광객여금무하로(狂客如今無賀老) 고승자고유천동(高僧自古有天童) 지령홀작비미우(地靈忽作微雨) 곡필시성경각홍(谷密時成頃刻虹)

바다 위에 구름을 뚫어 외줄 길이 통한 곳에 미간의 옥호광이 수정궁(강화(江華)의 바다)을 꿰뚫네. 눈앞엔 넘실넘실 세파란 유리관 하얗게 문명히 붉고 붉은 연꽃. 머리 위엔 장엄한 무량수를 이었고 손을 돌려 선재동자 쏘고 어루만지네. 굵슬굵슬 파란 머리털 푸른 옥 드리운듯 비치는 원광은 오색 무지개 두른 듯.

창해를 썩 갈라 좁배가 통하는 곳 오색 구름 깊은 속에 절이 우뚝 솟았네. 굽어보니 옥 거울이 맑디맑게 푸르고 먼저 솟은 금 바퀴는 번쩍번쩍 붉은 빛. 광객은 저무 세상에 하로 같은 이 없어도 고승은 예로부터 천둥이네. 지령이 문득 가랑비를 보내는데 골짜기 깊숙하니 무지개가 금시 뻗네.

‘보문사’라는 제목의 이 시는 고려 고종 때의 문신 이수(李需 1214~1259)의 시다. <동문선> 제18권에 전하는 칠언배율인데, 시 전체는 40행에 이르는 장시다. 시의 내용은 관세음보살의 덕을 칭송 찬탄하고, 관음도량 보문사의 정취를 담아 더욱 장엄하고 아름다운 맛을 낸다. 거

이 시는 관음도량 보문사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위덕에 귀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심과 원력을 노래하고 있다. ‘하로’는 당나라 초기의 시인 하지장(賀知章 677~744)을 말한다. 그는 말년에 사명산(四明山)에 살며 스스로 ‘사명광객(四明狂客)’이라 칭했다. ‘총몽’은 중국 진나라의 고사에 의한 것으로 아주 길한 절터, 여기서는 보문사를 뜻한다.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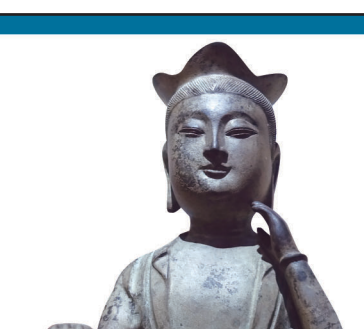
#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

말씀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즉신성불을 주시는 신비의 칠여래부처님 부산자비선원에 나투시다!

미려가 금금하고 답답하신 불자님들은 자비선원으로 오셔서 칠여래부처님을 진견하시고, 영험을 증득하십시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다보여래부처님 : 입시·시험·고시응시생, 재판계류 해결
- 보승여래부처님 : 행복, 재물 축적, 백만장자의 지름길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결혼인연, 득남 발원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체결 성사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공황장애·우울증·빙의 등 병고해탈
- 아미타여래부처님 : 극락왕생, 48가지 소원성취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제조·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칠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기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침선 중 홀연히 나타나신 큰 노승님이 주장자를 위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배려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두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황금 돌을 운운하시니 기원 중 개구 입구에서 아주 불꽃이 뿜어져 나오던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돌이 들어 차에 실고 와서 불꽃 색으로 달갸다. 석정이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려 말입니까?” 하고 단항한 기색으로 물었더니 스님은 “네모든 세모든 타원형이든 사각형이든 무엇이든 다들 가져 보내주세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이 다들 가져 왔다. 그 돌을 신중대에 올려 놓고 다게물을 올리 위해 옮기려 하자 움직이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중생을 일삼던 큰스님이 돌을 들고서 공백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놀라시며 잠시 좌정을 하셨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돌이 변하지 않은 돌인가 보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셨다. “왜 이렇게 신기한 현상을 발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시면서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같은 대좌를 하시면서 용담을 주고 받으시며 네 분의 부처님의 용담을 받고 오아여래부처님을 모시기 되었다. 말씀하신 정황이 중 두 분의 부처님도 인연을 맺게 되어 마침내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필멸종했다.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원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친견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